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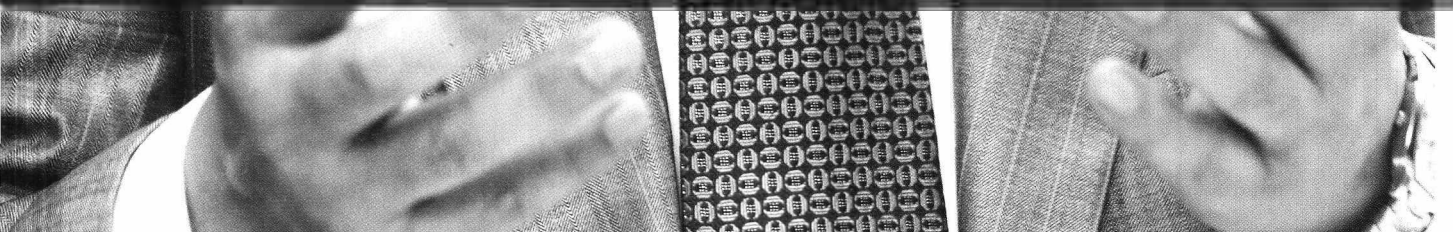
STANDARDS BUILDER 송재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정리 윤정호 기자 + 사진 김성문 기자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하는 세계적인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

송재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은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교육·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소비자 보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시험인증 기관이다. KCL은 특히 2010년 7월 8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출범한 이후 더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고 전문인력과 첨단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약 500여 명의 전문요원이 국내외 20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KCL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식약청 등 주요 12개 부처에서 40여 개 기관지정을 받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며, TÜV, MTS, Eurofins 등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해외로의 진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편집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통합 출범 후 2대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소감과 포부를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제품안전기본법을 입안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KCL은 신뢰성 있는 품질시험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관이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 출범 후 1년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반세기 가까운 역사를 가진 KCL이 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먼저 KCL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능력을 가진 직원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고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KCL, 보람을 느끼며 활기차게 일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KCL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임기간 동안에 추진할 것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나 창업 초기 기업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지도와 정보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전문보육기관을 운영해 국가 발전의 저변을 넓히고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안전, 환경, 의료기기, 바이오, 생활용품, 건설재료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인증과 시험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인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성 시험장면.



▲ 의약품 특성 비임상시험장면.

따라 국내 공산품시장은 에너지효율과 친환경성이 극대화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KCL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이들 제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시험인프라의 확충, 상호인정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환경·위생용품 분야에서는 유해물질평가와 안전인증업무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날로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의료, 바이오)제품과 소재의 안전성평가 및 표준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시험·인증 분야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KCL은 숙련된 전문인력, 첨단화된 인프라, 신뢰성 있는 시험평가체계를 두루 갖춘 국제 공인시험기관입니다. 특히 통합한 두 기관의 강점을 잘 살린다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재료 분야 최고의 기관이었던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과 40여 년의 경험을 토대로 생활환경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경험과 지식, 다양성을 살려 융합제품의 기술평가와 관련 기업들의 융합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종합건축환경시험장(오창), 안전성

평가센터(송도), 플라스틱신뢰성센터(대전), 해양환경 시험장(안산), 옥외폭로시험장(서산) 등과 같은 아시아 최고의 특수시험장들 또한 KCL이 가진 경쟁력의 근간입니다. KCL은 앞으로도 이 같은 첨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인증업체와의 제휴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의의를 말씀해주십시오.

KCL은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러시아,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10개국 2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올해 MTS, STC와도 양해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들 기관과 KCL은 시험검사와 인증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교류, 관련 분야의



▲ 서산옥외폭로시험장.

최신 기술협의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은 'KCL'이라는 브랜드를 국제 시장에 알리고 향후 본격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입니다. KCL은 국내 시험인증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취임사에서 새로운 업무영역 발굴로 성장을 견인하겠다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새롭게 발굴할 영역은 어떤 분야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구축 중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KCL은 많은 예산을 들여 신재생에너지사업 중 태양광 모듈 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BIPV)의 성능평가장비와 건축외파 시스템(커튼월) 성능평가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중의 핵심인 태양광사업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태양전지의 경우 장기 내구성 평가 및 시스템화 된 태양광 모듈 분야에 대한 평가기반이 미비하여 관련 업체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초고층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두바이의 버즈칼리파와 같은 초고층건물들이 경쟁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KCL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KCL은 장비 구축 후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중동 및 아시아의 신규 초고층건축물 성능시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 플라스틱 파이프관 내구성시험.

세계적인 시험·인증, 교육과 컨설팅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먼저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분석을 실시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고민하고 풀어낼 것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KCL이 다국적시험기관들과 경쟁하여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 평가 등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KCL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지명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CL이 전문인력과 첨단인프라, 객관적인 시험인증체계를 갖추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일조하고 있음을 여러 채널을 통해 알려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KCL이 차별화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상생파트너로서 동반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규제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KCL을 찾아주시는 3만 여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한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기술 지원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기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S**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별관 전경.